

영광군, 2023년 전남도 청년4-H 과제 공모전에 최종 선정

영광군 4-H연합회 회원 '강수성氏' 선발 상사화 영광 쌀 특화단지 조성 사업 제출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2023년 전라남도 청년4-H 과제 공모전”에서 영광군4-H연합회 회원인 강수성(26세, 묘량면)씨 사업이 최종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2023년 전라남도 청년4-H 과제 공모전”은 전라남도 청년4-H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에 공모

해, 신청자 27명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20명 중 치열한 발표평가를 거쳐 14명을 최종 선발했다. 본 사업은 최신 트렌드에 맞는 기술농업 및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과제 활동을 지원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청년4-H 회원을 발굴하고자 실시했다.

선발자는 내년도 '청년4-H 우수 과제 창업농 육성사업'으로 4천5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최종 선발된 강수성씨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심각한 농촌지역 문제를 논둑에 상사화를 심어 '상사화 영광 쌀 특화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고품질 쌀 생산과 관광지 조성, 일자리 창출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는 어릴적부터 친환경 농산물

을 생산하는 농부가 꿈이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농업고등학교, 농업대학교를 다니며 꾸준히 준비했다. 졸업 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전문적으로 유기농 쌀 생산기술을 배워왔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선정이 영광군의 청년농부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농부들이 많이 찾는 영광군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경률 기자

나주시, 대상중공업(주)·(주)킨트 혁신산단 투자 유치 협약 체결

나주시가 민선 8기 출범 후 윤병태 시장이 제1호 문서로 체결했던 2개 벤처기업 투자유치 협약 계획을 성사시키며 에너지신산업 선도 미래 첨단 과학도시 기반 조성에 힘찬 뜻을 올렸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11일 시청 11층 회의실에서 '대상중공업(주)', '(주)킨트'와 혁신산단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중공업(주)는 전남 영암에 본사를 둔 선박 구성품 제조업체로 최근 사업 다각화를 목표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산단 부지 7천306㎡에 80억원을 투자해 내년 상반기까지 'EV·ESS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 공장'을 건립, 고용인력 40명을 창출하고 향후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성에 맞춰 사업 영역과 부지를 확장할 방침이다.

경기 수원에 본사를 둔 (주)킨트는 농작업의 효율성을 더해줄 농기계용 자율주행키트 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밀 농업 벤처기업으로 국·내외적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킨트는 올 연말까지 혁신산단 8천192㎡에 58억원을 투자하고 기계 스마트 장비 제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4차산업 혁명 기술을 농업분야에 적용한 제품 개발·상용화 및 서비스를 구축하고 인력 37명을 고용한다는 목표다.

윤병태 시장은 “에너지신산업 메카 나주를 선도할 민선8기 제1호 투자 협약 주인공이 된 대상중공업(주), (주)킨트에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첫 투자협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기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출력을 해줄 사업 영역과 부지를 확장할 방침이다.” /김동철 기자

담양군, 저자초청 독서특강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8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4회에 걸쳐 '저자초청 독서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인문학교육·전통정원특구로서 군민의 다양한 교육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책 읽는 인문도시 정착과 인문학 저변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특강은 리얼인문학 박소영 대표를 초청해 저서인 '덴션 인문학 여행'을 주제로 어니스트 헤밍웨이 등 예술가와 창작의 영감을 주었던 명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참가자와 소통하는 양방향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8월 25일 빈센트 반 고흐, 9월 22일 어니스트헤밍웨이, 10월 13일 요한 볼프강 폰 괴테, 10월 27일 찰스 디킨스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며, 에듀센터 교육장(담빛청소년문화의집 3층)에서 각각 오후 7시에 진행된다.

29일까지 선착순 4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담양군청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하거나 군 자치행정과(061-380-3182)에 문의 후 팩스나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인문학교육 콘텐츠 개발과 다양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인본중심의 인문학 계승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진성 기자



(사)밀알중앙회 전남지구 장성지회(이하 장성밀알회)가 저소득 조손가정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장성밀알회(회장 최영천) 회원 30여 명이 최근 동화면 송계리 조손가정을 찾아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장성군 제공

장성밀알회,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

(사)밀알중앙회 전남지구 장성지회(이하 장성밀알회)가 저소득 조손가정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장성밀알회(회장 최영천) 회원 30여 명이 최근 동화면 송계리 조손가정을 찾아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회원들은 낡고 오래된 도배·

장판을 교체하고, 난방비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전기판넬을 설치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옷장, 청소기, 프린터 등 가구와 생활가전 용품도 후원했다.

최영천 회장은 “집수리 과정은 고되지만, 어려운 이웃이 행복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마련해드렸다는 생각에 매우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중 동화면장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밀알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따뜻한 마음이 모여 보다 살기 좋은 동화면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중 기자

화순군, 추경안 332억 원 편성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 중점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지난 11일 33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해 332억 원이 증가한 7천623억 원으로 일반회계 7천1억 원, 특별회계 622억 원이다.

주요 편성 예산은 ▲고인돌 관광지 개발 및 축제 준비 34억 ▲조광조 유배지 개발 등 18억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 15억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8억, ▲도시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7억 ▲화순군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7억 ▲산림경관 조성사업 6억 ▲화순천

꽃강길 조성 등 5억 등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신축 15억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지원 14억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 13억 등 농업 분야에 예산도 반영됐다.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비 25억, 경로당 집기 구입 지원 2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비도 증액, 편성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남도관광 1번지 실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SOC 확충 등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생활 SOC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민선 8기 화순군 비전인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호경 기자

무안군

청정갯벌 무안갯벌낙지

낙지의 고향! 무안을 말하다...